

교 당 소 식

◎ 월요법회 출석 연원 달기

원기 103년도에는 마음에 평안 얻는 법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부서직원분들 함께 출석하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하셨던 분은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2.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 주셔야 합니다.
3. 지역교당에 속하신 교도님은 본인 소속교당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당 헌공금은 어느 교당에 내시든지 전산처리로 모두 합산됩니다.)
4. 교당 헌공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교당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당에 소속되지 않은 교당은 대학교당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850-5584 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대중경 '인도품' 1-30장(p183-200) 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1월 15일 이후)

강선, 김종현, 류도곤, 박맹수, 유지원, 이영미, 이채산, 전경수

합계 : 340,000원

♥ 전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처 :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교감교무 : 보산 나상호 / 교무 : 지타원 박덕연 · 양수안 · 최현교 · 남궁현 · 표종인 · 신지겸

전화 : (063)850-5580~4 FAX : 850-5576 <http://won.wku.ac.kr>

지덕겸수 도의실천



원불교 중립학교 문화조성

제935호

원기 103년 1월 22일 넷째주



- 대중경 교의품 16장 -

김영신(金永信)이 여쭙기를 [사은 당처에 실지 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니까.]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 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 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이루지 못 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 불공은 어떻게 올리나니까.]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계(齋戒)하고 법신불을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禪定)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어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 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 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 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 눈 감으면 보이는 세계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에 대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학습되어 온 게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조상님, 순국선열.... 그러다가 종교의 문에 들어서면 또 다른 학습을 통해 믿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알라..., 이름은 달리하지만, 그토록 귀한 분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원불교에서 밥상에 앉아 식사(공양)에 앞서 부르는 공양(供養)의 노래가 있습니다.

“네 가지 크신 은혜 한데 어울려 알알이 은혜로운 거룩한 공양 몸은 길러 공도사업 더욱 힘쓰고 마음 길러 무상불도 이뤄지이다.”

세상에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한둘도 아니고 무수한데 크게 네 가지로 한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혹 선천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들리는 소리, 만져지는 촉감으로 상상을 하겠지요. 그 세계는 비단 장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천지은(天地恩), 부모은(父母恩), 동포은(同胞恩), 법률은(法律恩) 네 가지 은혜로운 세계로 구분지어 천명해주신 것입니다. 네 가지 은혜가 한데 어울려 드러난 세계의 모습이 바로 ‘일원상’입니다.

진리에 어두운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진리를 깨달은 성인(부처님)도 천지와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 생명이 유한한 우리로서 동포와 법률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돌이키기 힘든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전쟁과 차별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내게 무슨 은혜가 있느냐?”라며 항변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부침(浮沈)이 있게 마련인 한 사람의 일생(一生) 또는 현생(現生)만을 두고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被恩) 바를 바로 알아 보은(報恩)을 하도록 가르치신 것이며, 보은 또는 배은(背恩)을 할 경우, 인과보응의 이치에 따라 진강급을 하고 은혜를 입거나 해독을 입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눈을 떠도 은혜를 발견하고 눈을 감아도 은혜가 보여 보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참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낙원세상, 행복한 세상은 감사생활, 보은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세상입니다.

법 회 식 순

사회 : 박성태

◎표시는 일어서서

타 종	주례자
개 회	사회자
불전헌배◎	사회자 안내로
입 정	다함께
독 경	다함께
설명기도 및 심고가◎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주례자
법어봉독	(성가 128장) 사회자
일상수행의 요법	대종경 교의품 16장 다함께
설 법	(전서 54쪽) 다함께
다짐심고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 보산 나상호 교감 눈을 감으면 보이는 세계”
성 가	92장 『아침기도의 노래』 다함께
공 고	사회자
주간학사일정공고	기획처장
폐 회	사회자

법 회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월요법회	(월) 09:00	대법당	법심향	(수) 12:00 3학년	법전원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맥회	(금) 11:30	대학선방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선명상반 [자연대]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대학생회	(월) 17:30	동아리방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목요선방	(목) 12:00	대학선방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